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. 7. 23.(수)

산업부 장관, 한미(韓美)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·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

- 김정관 장관, 美 상무부·에너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한미 산업·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-

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(수)부터 25일(금)까지(현지 시간 기준) 미국 워싱턴 D.C.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,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
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.

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'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'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·반도체·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.

김 장관은 "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,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"이며, "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, 이를 계기로 한미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(positive sum)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영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노은정 (044-203-56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